

언론 탄압 상징 '보도검열관실' 복원 난망

옛전남도청복원협 "구체적 자료 부족 명패 설치로 대신" '충기 교육 전시' 삭제...설계 20일 완료·내년 10월 준공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사령부가 언론을 검열했던 탄압의 장소 '보도검열관실' 복원이 요원해졌다.

광주시·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 복원추진단·옛전남도청복원범시민모임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8일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28일 열린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안 공개설명회' 이후 시민·사회단체에서 낸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된 전시 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정 내용은 ▲도청 본관 3층 상 황실 총기 체험 전시 삭제 ▲국가폭력 내용 추가 ▲도경찰국 본관 5·18민주화 운동 역사실 내 관련자 처벌 관련 내용 추가 ▲육의전시내 외부현관 재현 연출 추가 등이다.

다만 지난 9월 퇴직 언론인들이 요청했던 '보도검열관실' 복원 관련 질의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보도검열관실 복원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 확보한 것은 진술서와 구술뿐이라는 것. 사진·영상 등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만큼 협의회는 보도검열관실이 존재했다는 명패 설치로 복원을 대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명패 설치와 함께 구술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했다.

옛전남도청추진복원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술과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을 설명하는 전시로서 재

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20일로 전시콘텐츠 기본계획을 마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전시 내용과 관련된 우려가 쏟아진 터라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5년 10월31일이며 2025년 1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주성학기자



옛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시민 설명회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열렸다. /김애리기자

광주시 '고령친화 건강활력도시' 만든다

'2025년 시행계획' 53개 과제 확정...9천445억 투입

광주시가 총사업비 9천44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돌봄복지와 보건·요양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5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획·학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2024년 실행계획 점검 및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25 시행계획"은 2023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재가입 이후 해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이다.

제2기(2023-2027년)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어르신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사회·물리적 도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광주시는 내년에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건강활력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총사업비 9천445억원(2024년 대비 788억원 증가)을 투입해 ▲일자리와 경제활동(1천600억원) ▲문화·여가와 사

회 참여(237억원) ▲스마트 돌봄복지(6천543억원, 기초연금 6천237억원 포함) ▲보건·요양(922억원) ▲생활환경 개선(140억원) 등 5개 영역 5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 내용 중 우선 확대해야 할 노인복지 정책으로 빈곤 완화,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노인돌봄(요양) 서비스, 치매 관련 서비스 등을 반영했다.

주요 세부 과제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확대 ▲장년층 빛고를50+일자리 및 생애 재설계 온·오프라인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기초연금 확대 ▲치매특화형 서부권노인복지시설 건립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총사자 처우 개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다음 통합돌봄"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다"며 "광주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위원회와 관계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환경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빛고를 김장대전' 257t 판매 역대 최대...16억5천만원 실적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광주시는 18일 "최근 실시한 '2024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1만2천여 명이 참여해 257t(16억5천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김장대전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지난해 216t(14억8천700만원)보다 19%(41t) 늘어났다.

특히 김치 완제품 현장 수령과 택배 신청량이 지난해보다 40% 급증해 최근 소비경향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공사 등 49개 기관

과 단체가 44의 김장김치를 취약계층에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주제회 경제창업국장은 "올해는 김장대전 예약이 조기에 완료되고 완제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특별히 신경썼다"며 "시민과 단체들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김장대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23
달돋이 21:19 달짐 10:51

인천	서울	춘천	강릉
-4/3	-6/5	-10/5	-1/8
대전	전주	광주	대구
-6/6	-5/6	-3/7	-3/7
목포	여수	제주	부산
-3/6	4/9	-1/8	0/11
흑산도	흑산도	흑산도	흑산도
-2/6	-2/6	-2/6	-2/6

광주	구름조금	-3/7
목포	구름조금	-3/6
여수	맑음	-1/8
나주	구름조금	-5/6
완도	구름조금	-2/8
구례	구름조금	-5/8
강진	구름조금	-4/8
해남	구름조금	-4/7
장성	구름조금	-5/6
보성	구름조금	-5/7
순천	맑음	-4/9
영광	구름조금	-5/5
진도	구름조금	0/6
흑산도	구름조금	-2/6
고흥	맑음	-5/9

●생활정보지수

너들이 40 빨래 60 세차 60 운동 40
감기 조심해요 야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실내운동 즐겨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5-3.0	1.0-2.0
남해 앞바다(북)	1.5-3.5	1.5-3.5
남해 앞바다(남)	1.5-3.5	1.5-3.5
남해 앞바다	1.0-2.0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1.5-3.5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2.0-4.0	1.5-2.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4:19	09:41
	17:15	22:28
여수	11:54	05:15
	23:53	17:57
녹동	12:36	06:16
	---	19:18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2월 20일(금)	☁ (-2/8)	☁ (-2/4)	☁ (2/8)	☁ (-3/7)	☁ (5/11)
21일(토)	☁ (1/6)	☁ (-1/3)	☁ (1/6)	☁ (-1/6)	☁ (7/10)
22일(일)	☁ (-1/3)	☁ (-6/1)	☁ (-3/4)	☁ (-3/5)	☁ (5/7)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초당대 간호대학, 최고등급 '5년 인증' 획득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초당대학교는 18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2024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대학이 최고등급인 '5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5년 6월11일~2030년 6월10일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간호학과 교육의 질과 역량 향상을 점검하는 평가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1년, 3년, 5년) ▲한시적 인증 ▲인증 불가로 구분해 판정한다.

초당대 간호학과는 ▲간호교육의 비전 및 행·재정체계 ▲성과 기반 교육과

정 운영과 구성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 교육 ▲교원확보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등 총 6개 영역 27개 항목에 대한 서류평가 및 방문평가를 통해 최고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김혜숙 초당대학교 간호대학장은 "초당대 설립자인 고(故) 김기운 박사가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했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과 국가·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영암5일시장

월출산 아래 사람 냄새가 나는

◎장이 서는 날◎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신북5일시장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장이 서는 날◎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시종5일시장

영산강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 가득한 곳

◎장이 서는 날◎
매월 2, 7일로 끝나는 날

독천5일시장

독천 낙차거리 갈낙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서는 날◎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영암군

문의 : 062)650-2099